

내 마음이 극락도 지옥도 만들어

나그네가 스님을 만나는 동안 문안 인사를 여주려 온 한 스님에게도 스님은 책을 건넸다. 나그네도 책을 받았다.

“책에 길이 있어. 난 그 길을 주고 싶은 거야. 내가 선물한 책을 보면서 발심하면 그보다 더한 선물이 어디 있겠어. 자네도 받아서 읽고 발심하는 사람이 되게나.”

법흥 스님은 어려서부터 불심 깊은 집안에서 자랐다. “속명이 유주흥인데 식구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 ‘중(주흥)아- 중(주흥)아~’로 들리잖아? 젊이라면 그저 좋았어.”

스님은 대학 졸업 후 출가 원력을 세웠다. 고려대 재학 당시 등학교길마다 고려대 뒤 개운사에서 부처님께 절 올리고, 처소 인근의 신설동 청룡사 새벽예불을 빼먹지 않았을 만큼 스님의 불심은 남달랐다. 스님은 출가를 위해 대승사 묘작암을 찾았고, 그곳에서 스님은 일타 스님을 만났다.

“출가하려 왔다” 하니 일타 스님이 “한 아들이 출가하면 구족이 생전한다”며 그 자리서 삭발해 주셨어.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이라 속가집에서 대승사까지 40리 길을 지게로 싣을 지어 나르며 공양주 노릇을 했다. <초발심자경문>도 배우고 3일 동안 1만 배 정진도 했고, 일타 스님이 수행처를 옮기면서 효봉·인곡 스님이 있는 동화사로 가서 해암 스님을 만나라고 일러 주셨어.”

해암 스님은 법흥 스님의 범상치 않음을 간파하고 효봉 스님에게 인도했다. 효봉 스님은 법흥 스님에게 “얼굴이 스님상인데 어찌 속가에 있었느냐”며 반겼다.

“효봉 스님은 ‘스님이 됐으면 참선밖에 더 있느냐? 강사가 죽을 때 후회하며 죽는다. 팔만대장경을 거꾸로 외운다 해서 생사를 해탈하느냐? 기도와 주력은 제 욕심 때문에 한다’며 참선하라고 강조하셨어.”

3년만 밑에서 참선 공부하라는 효봉 스님의 당부가 있었지만, 법흥 스님은 큰 절이 보고 싶어 미려사를 떠났다. 은사 효봉 스님만큼은 아니지만 닷깍이 출가를 했던 법흥 스님은 이를 만회하려고 힘 없이 정진했다. 통도사 보광전, 해인사 선원, 송광사 선원, 동화사 금당선원, 월내 묘관음사 등에 방부를 들이고 정진했다.

“무(無)자 화두를 들고 정진했지만 건강이 허락하지 않았어. 그래서 기도를 했다. 오대산·정암사·법흥사 적멸보궁을 비롯해 남해 보리암, 부석사 무량수전, 강화 전등사 등 기도하려 안다닌 곳이 없어.”

법흥 스님은 해인사에서는 성철 스님 권유로 340일 동안 17만 배 기도를 했다. 그리고 또 다시 340일 동안을 하루 네 번 1시간씩 마저를 올리며 기도 정진했다.

스님의 하루는 새벽 3시 ‘대불정능입신주’와 ‘법화경요품’ 독송 등으로 시작된다. 대웅전과 각 전각을 돌며 절을 올리는 스님의 순례(?)는 송광사 주지를 할 때부터 30여 년 넘게 하루도 거른 적이 없다.

스님에게 기도법을 물었다. 법흥 스님은 “구산 스님은 ‘목탁 치며 자기가 부르는 소리를 스스로 들으며 기도해야 한다’고 했고, 일타 스님은 ‘구하는 마음 없이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마음 쏘뚝이에 따라 정도에 나기도 하고, 고해에 빠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마음은 상이 없으니 무상이야. 그런데 이 마음이 모든 것을 지배해. 내가 갖는 마음이 극락도 만들고 지옥도 만드는데,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가?”

육조 혜능 스님이 의발을 빼앗으려 온 혜명 스님에게, 오도 후 입을 연 제 일성이 “선도 생각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러한 때 혜명스님의 본래면목은 어떠한가?不思善 不思惡 正當時 那箇是明上座 本來面目”였다. 그 말 끝에 혜명 스님은 크게 깨달았다.

법흥 스님은 “이것이 중도실상의 법문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체 선법을 닦아야 하는데, 바로 마음을 닦는 것이다. 불교공부는 결국 마음공부”라고 말했다.

이러 스님은 “마음을 닦는 것이 수심(修心)이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양심



(養心)이며, 마음을 쓰는 것이 용심(用心)이라면서 “어느 하나 먼저라 할 것도 없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 자신이 무엇인가 반성해 봅시다. 사람은 과연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어야 하는가. 나는 왜 존재하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다 밑 진흙소가 달을 머금고 달아나니(海底泥牛負月走) 바위 앞에 돌호랑이가 아이를 안고 울고 있다(巖前石虎抱兒眠) 철뿔이 금강신장의 눈에 끼여드니(鐵鑽鑽入金剛眼) 곤륜산이 코끼리를 타고 백호가 이른다(崑崙騎象白鸞牽)

나그네는 방우산방을 나오는 길에 들어갈 때는 보이지 않던 산방의 편역을 보았다. 고봉 화상의 <선오>에서 옮겨진 저 말을 알게 되는 때, 나그네도 청정심을 얻어 부처가 될 수 있을까?

송광사를 나서는 길, 법흥 스님의 가르침이 ‘물소리 바람소리’처럼 나그네를 적신다. 글=조동섭 기자·사진=박재원 기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87. 인도불교의 개척자 암베드카르

1956년 10월 14일과 15일, 인도 나그푸르의 덕사 부미에서 50만명이 일시에 불교로 개종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일찍이 세계에 유래가 없었던 대규모 개종으로 기억된다.

이러한 불교 집단 개종식을 주도한 인물은 암베드카르(Ambedka, 1891~1956)다.

암베드카르는 인도 빈민출신으로 유럽에서 법률과 경제를 공부하고 귀국 후 봄베이주정부 요직에 근무했다. 그러다가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자 중앙정부 법무부장관이 됐다. 또 이후 인도의 헌법기초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불교의 평등정신에 의해 새 인도 헌법을 제정했다. 이후 암베드카르는 인도불교협회 등을 만들고 봄베이와 오랑가바드에 불교대학을 설립했다.

암베드카르가 처음부터 불교

를 주장했다. 그래서 귀권을 따지고 빈부격차를 당연시하는 동안 불교는 쇠퇴했고 천민은 더욱 가난해졌다. 다행이도 민족해방운동가 가운데 비베카난다(1863~1902), 타고르(1862~1941), 간디(1869~1948), 네루(1889~1964) 등에 의해서 불교의 재건운동이 전개됐다. 그 흐름을 타고 다르마팔라의 대각회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돼 불교 유적지에 새로운 사원을 짓고, 불교유적지의 관리와 불탑의 보호도 시작했다.



호소해 도서관·박물관·의료시설 등이 새롭게 탄생하고, 나란다 팔리 연구소, 파르나의 자야스와르 연구소, 델리대학에 불교학강좌가 개설됐다.

인도의 여러 민족독립운동가 가운데서도 네루와 간디는 “힌두교를 개혁해 민족운동을 실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타

“인도 민주화 되는 날 불교는 민중의 별이 되리라”

도는 아니었다. 그는 스리랑카에서 불교를 체험한 뒤 불법에 대한 확신에서 개종했다. 그의 개종에 이어 인도의 천민 50여만 명이 함께 불교에 귀의했다. 그래서 현재는 전 인도에 1억여 가까운 불교신도가 생기게 됐다.

그의 개종식은 불기(佛紀) 2500년을 기념한 1956년 10월 14일 나그푸르에서 거행됐다. 이 역사적인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암베드카르는 지지자들 앞에서 ‘불교입문강제 22개항’을 발표했다.

맹세문의 주요 내용은 △불타의 법을 택한다 △불타가 가르친 10계를 지킨다 △모든 생물을 자비롭게 보호한다 △불교야말로 유일한 참된 종교라고 확신한다 △힌두 신전의 어느 신도 인정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는다 △조령제(租靈祭)를 지내지 않고 제사떡을 드리지 않는다 △불타의 법에 거슬리는 어떠한 관행에도 따

를 방해하고 불평등주의적인 힌두교를 고발한다 △불타가 가르친 그밖의 다른 계율과 교리에 따라 살아갈 것을 맹세한다 등이다.

인도불교가 멸망한 것은 불교 교단의 자체분열과 인도 후기 대승불교의 밀교화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당시 이슬람 세력의 인도 침입은 나라 전체를 어렵게 했다.

1000년간 황무지를 헤맨 인도에 다시 희망의 봄바람이 일기 시작한 것은 다르마팔라의 대각회운동과 암베드카르의 신불교 운동 덕분이다.

다르마팔라의 대각회운동은 스리랑카 스님들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반면 암베드카르의 신불교운동은 인도재가불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나 이전과는 다른 운동이었다는데 그의 의의가 있다.

인도는 사상적으로 힌두교를 믿는 계급과 인종들이 4성 계급

고르과 암베드카르는 “사성평등을 먼저 선포하고 해방운동을 실천해야 인도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견해의 차이를 보이나 결국 힌두교의 개혁운동이 먼저 실현됐다.

이에 대해 암베드카르는 항상 자신 있게 예언했다. “걱정하지 말라. 인도가 민주화되는 날에는 불교는 저절로 민중의 별이 되리라.”

그는 생의 마지막까지 위와 같이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지금도 인도 곳곳에는 부처님과 그의 동상이 1만 여개 이상 건립됐으며 그를 추종하는 백성들은 날로 늘고 있다.

나는 지난 여름 인도를 찾았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암베드카르가 죽은 지 백백년이 됐어도 인도 전역에서는 암베드카르의 정신이 새롭게 불타고 있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

영봉스님과 함께 '히말라야 행선 트레킹' 나를 찾아가는

세계 최고봉 16좌 가운데 10좌를 한 눈에 볼 있는 곳 히말라야 트레킹의 베스트 코스 피케이봉(4200m)을 오르는 동안 누구나 수행자가 되고 누구나 깨달음의 순간을 체험하게 됩니다.

네발 카트만두에 영봉스님이 개설하여 운영 중인 '세종 한국문화 언어교육원' 과 한국내 영봉스님 후원회 '히말라야의 꿈'이 공동 진행하는 제 2차 영봉스님과 함께 나를 찾아가는 히말라야 행선 트레킹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참 안내

- ▲일 시 : 2010년 4월 9일(금) ~ 23일(15일)
- ▲코 스 : 인천공항 대한항공 직항 → 카트만두 → 지리 → 시발라야 → 반달 → 마이리 → 불블레 → 베이스캠프 → 피케이봉 정상 → 준베시 → 반달 → 시발라야(이로봉사) → 지리 → 카트만두(시내관광 등) → 인천공항
- ▲인 원 : 30명 선착순.
- ▲참 가 비 : 287만원 (비자비 5만원 별도)
- ▲입금계좌 : 국민은행 718202-01-142493 (예금주 : 임연태)
- ▲전수마감 : 4월 2일(금)
- ▲사전설명회 : 4월 3일(토) 오후 4시(정소=개별공지)
- ▲문 의 : 임연태(히말라야의 꿈 사무총장) 017-236-5769

공동 주최

▲세종 한국문화 언어교육원 / 히말라야의 꿈

영봉(예종) 스님

1990년 부처님오신날 세계최초 성지자 신분으로 히말라야 메라픽(6750m)을 등정해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이후 20여 년째 안나푸르나, 킬리만자로 등 세계 고산등정을 계속 하고 있다. 현재는 네발 카트만두에서 '세종한국문화언어교육원'을 설립 현지 가이드 셀파 포터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사찰 연등 및 전선(범당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특정 가변고 설정이 용이

동간격·규격참조

원터치 연등 회전감미

SMD LED전구(국산정품)

고주구 128 인자구 268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 (정품)

- ▶고추전구, 인자전구 (정품)
- ▶범당용, 외곽용
-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소켓 AC220V용으로 다양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 (정품)

- ▶고추전구, 인자전구 (정품)
- ▶종류: 3W, 5W, 10W
- ▶특 휠라멘트로 빛이 윤택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 초, 방생, 탐들이 행사용
 ▶정사초롱 및 초롱 길이다

연 등 (정품)

범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석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권사찰, 범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